

“고용상황에 책임 느껴, 필요하면 정책도 수정”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상황 관련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 “고용상황 정상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그간의 경제정책도 효과를 되집어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 당과 협의해 개선,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비즈 프리즘 | 33도 넘는 날 빅데이터로 본 인기 피서법

바다보다는 홈캉스...보양식보다 냉음료

〈집에서 여름 휴가를 보낸다는 신조어〉

기록적 폭염이 여름 생활패턴 바뀌 작년보다 홈캉스 4.8배, 커피서 4배↑
몰캉스·백캉스 등 새 휴가 트렌드로
빙수 냉면 등 시원한 식음료 큰 인기

사상 최악의 폭염이 여름철 생활패턴까지 바뀌 놓았다. 여름 휴가철의 1순위 인기 여행지였던 바다를 찾는 사람이 확 줄었고, 특정 여행지 대신 휴가를 집에서 보내는 일명 ‘홈캉스’(홈+바캉스의 신조어)족이 크게 늘었다.

SK텔레콤은 소셜 분석 서비스 플랫폼 ‘스마트 인사이트’를 통해 7월 낮 최

고기온이 33도 이상으로 관측된 날을 기준으로 국내 인터넷 뉴스와 블로그, 게시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수집한 빅데이터 131만7420건을 분석해 19일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먼저 ‘더위’에 대한 언급은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여름 대중적인 피서지인 바다를 찾고 싶다는 내용의 데이터는 오히려 지난해의 60%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대신 냉방이 잘 되는 집에 머물거나 가까운 곳에 있는 실내공간을 찾겠다는 의견이 큰 폭으로 늘었다. 집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겠다는 의견은 무려 4.8배나 증가했다. 베란다에 아이의 수영장을 만드는 등 시원한

공간을 꾸미겠다고 밝힌 의견도 다수 집계됐다.

또한 시원한 카페전문점을 찾는 일명 ‘커피서’(카페전문점+피서)를 즐기겠다는 의견과 워터파크를 찾겠다는 내용도 지난해보다 각각 4배, 3.2배 늘었다. ‘호캉스(호텔)’, ‘몰캉스(쇼핑몰)’, ‘백캉스(백화점)’ 등 여름철의 새로운 휴가 트렌드를 나타내는 신조어도 폭염 여파로 지난해보다 훨씬 많이 언급됐다.

음식 역시 폭염의 영향을 받았다. 통상 ‘이열치열’로 대표되는 여름 보양식보다는 차가운 식음료로 더위를 달래려는 경향이 뚜렷했다. 삼계탕 등 뜨거운 보양식으로 기력을 보충해 삼복더위를

이기겠다는 언급이 지난해 보다 1.5배 이상 높았으나,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이후로는 빙수, 냉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시원한 식음료로 더위를 극복하겠다는 의견이 다수 등장했다. 폭염기간 시원한 음료에 대한 언급은 지난해에 비해 2.8배 증가했다.

이밖에 ‘여름을 시원하고 건강하게 나는 법’ 등 여름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반면, ‘덥다’, ‘폭염’, ‘살인적인’ 같이 부정적인 키워드는 177%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올해 여름 더위를 더욱 극심하게 느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한 눈으로 보는 주간 경제 13~17일

코스피지수	2247.05	↓	-35.74
코스닥지수	772.30	↓	-12.51
日 닛케이 지수	2만2270.38	↓	-27.7
中 상하이 종합	2668.97	↓	-126.34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1.997	↓	-0.043
환율 (원·달러)	1125.00	↓	-4.5
국내금값 (원/그램 g)	4만2576.27	↓	-1326.15

지수는 17일 증가, 등락은 주간 집계.

서울 인천 광주 부산 찍고
‘롤드컵’ 결승은 인천서 고!

4년 만에 한국서 열리는 롤드컵 결승이 인천 문학 주경기장에서 열린다.

라이엇게임즈는 ‘2018 리그오브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의 경기장과 티켓 판매 일정을 최근 공개했다.

올해 롤드컵은 10월1일부터 11월3일까지 서울, 인천, 광주, 부산 등 4개 도시에서 열린다. 11월3일 결승전은 4만5000여석 규모의 인천 문학 주경기장에서 치러진다. 10월27일과 28일 열리는 4강전은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 10월20일, 21일 열리는 8강전과 10월10일부터 17일 실시하는 그룹 스테이지는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각각 진행된다. 일종의 예선전인 ‘플레이-인 스테이지’는 서울 종로 ‘LoL PARK’에서 열린다. 이번에 처음 공개하는 LoL PARK는 라이엇게임즈가 직접 운영하는 e스포츠 문화공간이다.

각 스테이지별 관람 티켓은 21일부터 9월25일까지 5회에 걸쳐 판매한다. 플레이-인 스테이지, 그룹 스테이지, 8강, 4강, 결승전까지 한 달간의 경기 티켓을 화요일마다 순차 판매할 예정이다. 인터파크에서 1인 4장까지 구매 가능하다. 세부일정은 조 추첨식 직후 공개한다.

김명근 기자

홍봉철 회장 “용산을 로봇 신유통 메카로 만들겠다”

〈전자랜드〉

26일까지 ‘용산 로봇 페스티벌’ 열려
로봇전시·체험 등 20여개 업체 참여

전자랜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서울 용산을 ‘로봇 신유통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홍봉철 전자랜드 회장은 17일 서울 용산 본사 신관에서 열린 ‘2018 용산 로봇 페스티벌’ 개막식에서 “이번 ‘로봇 페스티벌’은 용산을 로봇 신유통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며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중심이었던 용산의 명성을 되살리고 침체된 지역상권에 활기를 더한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26일까지 열리는 ‘2018 용산 로봇 페스티벌’은 4차 산업혁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메인 행사는 로봇전시 및 체험으로 KT 기가지니, 드로젠의 드론 등 20여 개 국내 로봇 업체가 참여해 시연을 펼친다.

코딩교육을 통해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환경에서 로봇제작의 기본원리도 익힐 수 있다. 토크콘서트에서는 로봇 전문가를 초청해 4차 산업 관련 강의를 마



홍봉철 전자랜드 회장이 ‘2018 용산 로봇 페스티벌’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전자랜드

련했다. 관람을 원하는 고객은 누구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한편, 전자랜드는 17일 서울시,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함께 로봇 신유통 플랫폼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로봇산업 발전을 위해 로봇 신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용산 전자상가 일대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자는 내용이다.

홍봉철 회장은 “국내 로봇 수요 창출과 산업발전을 위해 전자랜드에 로봇 플랫폼을 위한 장소를 제공할 것”이라며 “한국 로봇 산업이 전 세계를 주름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경제현장.jpg

이낙연 총리, 자카르타 KT 5G 체험관 방문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문을 연 KT 5G 체험관을 방문해 가상현실(VR) 배드민턴을 체험하고 있다. KT는 9월2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경기장에 평창에서 선보였던 5G 서비스를 적용하는 한편 프리뷰와 옴니뷰, 싱크뷰 등을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5G 체험관을 운영한다. 사진제공 | KT

삼성, 디지털프라자 ‘QLED TV존’ 새단장
삼성전자는 전국 디지털프라자 300여개 지점에 ‘QLED TV존’을 새롭게 단장했다. TV 진열 수량의 50% 이상을 QLED TV로 바꾸었고 고화질과 스마트 기능, 매직스크린·매직케이블 등 2018년형 QLED TV의 차별점을 경험할 수 있도록 꾸몄다. 8월 한

달 동안 ‘아시아게임 승리기원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매장에서 2018년형 QLED TV를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43인치 UHD TV’, 최대 100만원의 더블 캐시백 등의 혜택을 준다.

김명근 기자

편집 | 신하늬 기자



교육·퍼즐

에듀윌

주택관리사 합격 전략 설명회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퇴직 후 소장 직함으로 근무 가능한 직업 ‘주택관리사’

바야흐로 100세 시대지만 일할 수 있는 연수는 짧기만 하다. 60세 맞춰서 정년퇴직할 수 있다면 그것은 행운. 40, 50대까지 직장에 붙어있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인지 정년 이후의 나이에도 입사가 가능하고, 70대까지도 ‘소장’ 직함으로 월급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직업이 있어 화제다. 바로 ‘주택관리사’. 소위 말하는 아파트 내 관리소장이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주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회 경력이 있는 중년층을 가장 선호한다. 따라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정말 놓치지 아쉬운 전문 직종이라 할 수 있다. 주택관리사는 회계부터 시설 관리까지 아파트 단지 내 모든 것을 총괄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발 빠른 직장인들은 퇴직을 앞두고 주택관리사 시험을 준비한다. 특히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 시험이 상대평가로 전환되기 때문에 2019년 합격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 상대평가로 전환되면 합



격자 수가 부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2019년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다. 주택관리사는 법 과목이 많기 때문에 공부해야 할 양이 방대하다.

시험 합격뿐만 아니라 합격 후 취업을 생각했을 때 도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다.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데다 주택관리사가 관리하는 건물의 영역도 주택에서 상가나 사무실 등으로 넓어지고 있어 주상복합 등도 관리소장을 채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에듀윌은 오는 26일과 9월 2일 전국 주택관리사 직

영학원에서 합격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수진 기자 sujini22@donga.com

■ 스도쿠문제

		9		7		4	2	
8			1	2				
3		2				1		7
	5			6			9	
4			5		1			8
	9			2			4	
6		5				8		4
			6		5			2
8	1		4		9			

		8			9			
			1		2		6	
	3		5		1		7	
		2	1		7	4		
1	4						2	7
		7	9		2	3		
	2		4		5		9	
5		9		7		2		
				1			6	

■ 스도쿠정답

9	5	6	7	8	1	8	2
2	1	8	9	8	9	7	6
7	7	8	6	1	2	9	8
9	7	9	8	2	7	8	6
8	8	7	1	6	9	9	7
1	6	2	8	9	4	8	9
7	8	1	7	9	6	2	9
6	9	2	8	1	7	7	8
8	2	7	9	7	8	6	1

8	9	9	6	1	2	8	7
7	8	2	9	7	8	6	1
1	6	7	9	8	7	9	2
9	1	8	2	7	6	7	9
7	2	6	8	9	9	8	7
8	5	7	7	8	1	2	9
6	7	8	1	9	9	7	2
9	8	9	7	2	8	1	6
2	7	1	6	7	8	9	9